

근대건축물의 지정종류에 따른 보존 및 활용개념 비교연구 -전주 박다옥과 인천 조흥상회의 활용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문승현¹, 안대환^{2*}

¹문화유산국민신탁, ²충북대학교 건축학과

Comparative Study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Concepts According to the Designation Types of Modern Architecture Buildings

-Focusing on the Case Studies of Jeonju Bakdaok and Incheon
Choheungsanghoe's Utilization Plans-

Seang-Hyen Moon¹, Dai-Whan An^{2*}

¹The National Trust for Cultural Heritage

²Department of architec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근대건축물로서 여러 법령과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근대건축유산에 대한 서로 다른 보존과 활용의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함께 실제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전주 박다옥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인천 조흥상회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두 법령과 사례 모두 공통으로 근대건축유산의 보존 및 활용 관점은 관련 법률의 기본원칙과 목표에 영향을 받지만 본질적으로 진정성을 유지하는 개념에서 건축적 가치의 보존을 기반으로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존과 활용의 방식이 건축적 가치의 보존과 당해 문화유산이 가지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과의 조화를 기반으로 함을 알 수 있었다. 차이점으로는 등록문화재인 전주 박다옥의 적극적 보존과 수동적 활용의 관점과 건축자산으로서 인천 조흥상회의 수동적 보존과 적극적 활용의 관점과 같이 보존 및 활용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근대건축유산의 보존 및 활용 관점은 법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건축적 가치 보존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actual cases alongside relevant laws to understand the differing approaches to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managed under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he study focuses on Jeonju Bakdaok, designated and managed as a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Incheon Choheungsanghoe, designated and managed under the Act on Value Enhancement of Hanok and Other Architecture Assets. Ultimately, both laws and cases show that whil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perspectives are influenced by the basic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relevant laws, they fundamentally prioritize the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value, maintaining authenticity. Thus,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pproaches are based on preserving architectural value and achieving harmony with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heritage. Differences emerge in the active conservation and passive utilization approach of th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Jeonju Bakdaok, versus the passive conservation and active utilization approach of the architectural asset, Incheon Choheungsanghoe. Therefore,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should focus on preserving architectural value, considering present and future aspects, regardless of the legal distinctions.

Keywords :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Utilization, Conservatio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ct on Value Enhancement of Hanok and Other Architecture Assets

이 논문(연구실적물)은 2024학년도 충북대학교 연구년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conducted during the research year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24)

*Corresponding Author : Dai-Whan An(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an4229@cbnu.ac.kr

Received January 22, 2024

Revised February 20, 2024

Accepted April 5, 2024

Published April 30, 2024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근대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건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확장되고 있다. 또한 근래에 도심 재생 및 건축자산 활용의 측면에서 근대건축물을 되살려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는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근대건축물은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이나 등록문화재 등으로 지정되거나 등재된 근대건축유산으로서 오랜 기간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왔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근대건축유산은 문화재, 향토유산, 건축자산, 미래유산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보존·활용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국민신탁처럼 기관의 법적인 특성에 따라 별도로 조사되고 목록화되어 보존·활용되고 있는 근대건축유산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가치에 기반한 여러 유형의 법규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축유산은 그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각각의 법규나 규정이 그 제정에서부터 실제적인 등재와 활용을 위한 전체적인 과정을 체계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례가 축적되면서 점차 법규나 규정이 정리되기도 하고 유형에 따라 보존과 활용의 방식들이 정리되어 서로 구분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는 사회 문화적인 변화와 정제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근대건축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각각의 근대건축유산에 적합한 보존과 활용의 방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변화의 과정 중인 지금 시점에서 근대건축물에 대한 법규나 규정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의 정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연구는 추후 진행될 변화의 과정에 조금 더 발전적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근대건축물로서 여러 법령과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근대건축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방식이 각각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적용되는지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근대건축유산과 관련된 법률 검토로 근대건축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련된 법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보호법과 비교적 근래에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근대건축유산에 대하여 두 법률이 바라보는 가치기준,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점을 파악한다.

두 번째는 활용계획 사례연구로 앞서 검토한 두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근대건축유산인 전주 박다옥과 인천 조흥상회의 활용계획수립 사례를 살펴 각 법령에 따른 활용의 개념과 방법을 파악한다. 전주 박다옥과 인천 조흥상회는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근대건축유산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는 두 사례에 대한 활용계획을 2022년도 수립하였다. 이 중에서 전주 박다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인천 조흥상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활용계획을 기반으로 전주 박다옥과 인천 조흥상회의 입지, 연혁, 문화유산적 가치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실제로 계획되고 적용하고자 하는 보존 및 활용 방식을 파악한다.

세 번째로는 법률검토와 실제사례를 기반한 비교검토이다. 문화재보호법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근대건축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개념을 비교·분석하여 추후 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나아갈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검토

김병섭의 연구 [1]에서는 근래 문화유산의 개념이 확장되는 시기적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문화유산의 개념을 폭넓게 확장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미래유산과 일본의 근대산업문화유산 인정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상우, 임초룡의 연구 [2]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이 법제 안에 포함되어 보존, 활용되어야 하기 위해 법제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유산이 가지는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논하고 있다.

이현경 외의 논문 [3]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유산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개념의 변경을 논하고 있다.

황수환의 연구 [5]에서는 건축역사문화재산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보존의 가치와 진정성을 가진 문화유산의 개념 확장을 논하고 있다.

박지연, 장동련의 연구 [4]에서는 근대산업유산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7개의 실제 사례를 근대산업유산이 가진 가치를 유형으로 나누어 보존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각각의 법령에 대한 연구나 문화유산의 개념 변화와 확장에 대하여 다룬 것이 대부분이며 법령의 차이에서 출발하여 활용 사례에 대한 검토까지 이어져 보존과 활용의 개념을 제시한 연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국가유산 기본법이 시행되고 건축자산 등의 법령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가치와 개념이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법률검토

2.1 문화재보호법 검토

문화재보호법은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원형 유지를 하고자 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 관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운영되었던 문화재에 관련된 보호 법령인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1916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등의 영향을 받다가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은 문화재 보호 제도의 역사와 함께 법제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인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1조 이 법의 목적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을 보면 '문화재를 보존, 계승'하는 목적과 '활용하여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의 두 가지를 모두 표현하고 있다. 2조 문화재의 정의를 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문화재의 가치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로 판단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3조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을 보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기본원칙은 '원형 유지'라고 할 수 있으며 후세에 '원형 유지'된 문화재를 계승하는 것이 주

요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적용되는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종류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개념만을 문화재보호법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는 문화재의 유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전주 박다옥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등록문화재는 비교적 늦게 2001년에 만들어진 문화재의 유형이다. 등록문화재제도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많은 근대기 문화유산이 멸실 및 훼손되어 가는 위기에 처함에 따라 유연한 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되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등록문화재는 당해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완화된 보존조치 시행으로 지정문화재와는 구별된다.

등록문화재는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보존되는 가운데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 외관의 4분의 1 이상 변경행위 등은 문화재보호법 제 56조에 따라 신고토록 하고, 필요시 지도, 조언,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6] 즉 등록문화재는 보존과 활용의 가치 중에서는 지정문화재와 비교해 활용의 가치를 조금 더 중점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래에는 국가등록문화재와 지방등록문화재로 구분하여 근대문화유산에 대하여 더욱 세밀하게 정리하고 있어 그 문화재의 수가 앞으로는 점차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근대건축유산은 현재까지는 문화재보호법 안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24년 시행될 '국가유산 기본법'으로 크게 변화할 예정이 되어 있어,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및 유형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등록문화재 또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미 시행이 예정된 '국가유산 기본법'이 의도한 커다란 개념에서 보존과 활용의 테두리 안에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의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건축유산은 총 533건이며 전북에 지정된 근대건축유산은 80건이다.

2.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검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한옥등건축자산법)은 국토교통부의 건축문화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은 2015년 시행된 법으로서 비교적 근래에 건축문화유산의 활성화에 기대어 만들어진 법이다. 법의 목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건축자산의 정의는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물들을 말하며 ‘한옥 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은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과 함께 진흥 및 활용을 위해 건축자산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은 국내의 전체 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9년의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492개이다.

3. 활용계획 사례 검토

3.1 사례 검토 개요

이번 장에서는 문화유산국민신탁의 ‘2022년도 수탁 및 보존재산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 [7]를 기반으로 전주 구 박다옥과 인천 조흥상회의 보존 및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두 근대건축유산에 대한 비교의 관점은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위한 기준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건물은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등재되어 있기에 서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3.2 전주 박다옥 활용계획

3.2.1 전주 박다옥 관련 조사연구 자료

박다옥은 2005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 변경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 후 2006년 박다옥에 대하여 기록화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구 박다옥은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중반 사이에 지어진 상업건축물의 전형적인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는 당시의 건축구조와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또 건물 전체에서 건립 당시의 초기 형태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부분이 목조 왕대공 트러스 구조의 지붕틀이며, 전체적인 외관 구성에서도 장식적인 처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으나 다소 단순화된 형태로 표현되는 당시의 과도기적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8]

수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보존되어야 할 부분과 원형에 가깝게 수리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는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기록화조사보고서’는 현황을 조사하고 보존의 측면에서 박다옥을 보고 있다는 점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3.2.2 전주 박다옥의 현황

전주 박다옥은 전주읍성 동문과 서문을 연결하는 중심도로 북쪽에 있으며 읍성 성벽이 철거되고 일본인 상가로 형성되면서 건립되었다. 건물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건축물 관리대장 사용승인 일자가 1929년으로 확인되고 있어 1920년대 말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틀 상량문에는 건축주와 함께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일부가 파손되어 건축연도와 관련된 건축기록 전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1931년에 발행된 전주안내도(全州案内圖)에도 박다옥(博多屋)으로 기록되어 있어 1931년 이전에도 건물명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건물은 당시 호텔·대중탕과 함께 성업했던 ‘하카다(博多)계열의 식당이었다. 이후 전주 박다옥 건물은 남선전기주식회사, 금융기관 등으로 사용되었고 얼마 전까지 웨딩숍, 사무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임시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다옥은 지상 3층의 콘크리트 블록조 건축물로 지붕틀은 목조 트러스로 구성하였다. 건물 주요 구조체는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보강하여 형성한 외부 벽체와 3개의 주요 기둥으로 구성하였고 시멘트 벽돌로 쌓은 내부 벽체로 구획된 계단실을 중심으로 좌·우측 공간으로 양분하였다.

박다옥 계단실은 외부 입면에 장식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특히 3층 창문 위에는 오각형 인조석에 원형과 번개 모양을 중앙에 배치하고 주위에 식물의 줄기와 잎을 사실적으로 구성하여 디자인하였다. 이 번개 모양의 형태는 이 건물이 조선전기주식회사로 사용되면서 새겨진 회사 상징으로 추정된다. 또한 박다옥에는 크기와 배열 등이 불규칙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창호가 확인된다. 창문의 비례가 정면과 우측면이 다르고 인방 재료와 마감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많은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Fig. 1. Panoramic view



Fig. 2. Front view



Fig. 3. Side view



Fig. 4. Decorative elements



- ① Jeonju Bakdaok
- ② Kaeksagil
- ③ Jeollagameyeong Provincial Office
- ④ Nambu Market
- ⑤ Pungnammun Gate
- ⑥ Gyeonggijeon Shrine
- ⑦ Jeondong Catholic Cathedral
- ⑧ Jeonju Hanok Village
- ⑨ Mural Village

Fig. 5. Surrounding conditions of Jeonju Bakdaok

전주 박다옥은 전주 최초의 일식 전문 식당으로 건립되어 전라감영, 경기전 등과 함께 전주 구도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 주변에는 웨딩거리가 있고 도시재생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변에는 전주 미래유산 등이 분포하여 미래유산 투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2.3 전주 박다옥의 활용계획

전주 박다옥은 ‘전주의 도시·건축·문화 발전을 보여주는 구심점이 되는 공간’을 비전으로 하고, 박다옥의 역사적, 건축 가치를 살리는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 지역민, 관광객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여 전문성, 수익성,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운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Vision	A central space showcasing the development of urban, architecture and culture in Jeonju		
Goal	A program and spatial arrangement that preserves the architectural value of Bakdaok	Creating a space that caters to the needs of both locals and tourists	Establishing operational strategies that simultaneously fulfill expertise, profitability, and public accessibility

Fig. 6. Basic utilization direction of Jeonju Bakdaok

활용계획은 사업실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기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단기활용은 2023년~2024년으로 계획하여 1층은 디지털 영상관 및 시민대상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2층은 청년 예술가, 지역 학생들의 작업실로 3층을 사무공간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었다.

장기활용은 2025년 이후로 1층은 전주 도시·건축발전 전시관과 뮤지엄숍으로 2층과 3층은 열린 대여공간과 사무실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었다.

전주 박다옥 활용 콘텐츠는 전주 최초의 일식당으로 근대건축 형식이 잘 남아있어 박다옥 개점 당시의 의미와 가치 보전하기 위해 개점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후 열린 공간대여 서비스존을 마련하고 전주부성 내에 위치하여 전주의 도시문화 변화를 보여주는 박다옥의 위치적 특징을 고려한 전주 도시·건축 발전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콘텐츠를 활용전략을 구성하였다.

운영시스템은 지역 전문가 위탁운영을 통한 전문성, 수익성 확보 방안이 필수적이고, 지역 작가 협업 프로젝트와 지역 청년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공공성 충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전주 박다옥의 공간디자인은 근대식 외관과 구조를 살려, 건축적 가치와 장점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박다옥 활용계획은 원형보존 및 역사성을 기반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공성이 강조되며 운영비

층당을 위한 일정 부분의 수익성이 고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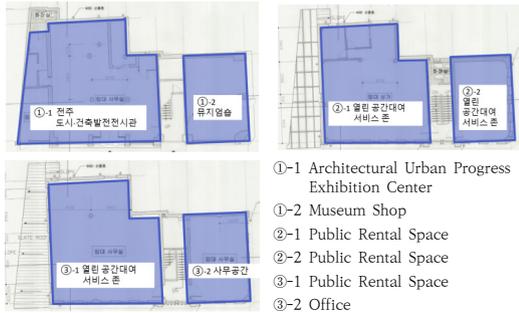


Fig. 7. Space layout of Jeonju Bakdaok

3.3 인천 조흥상회의 현황

3.3.1 인천 조흥상회 관련 조사연구 자료

인천 조흥상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의하여 2019년부터 건축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천광역시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492개의 건축자산을 조사하고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보고서 [9]를 작성하였다. 당시 2019년 5월 27일 조사된 건축자산(건축물)기초조사 표에 의하면 조흥상회의 정리번호는 '인천광역시-동구-B1-199'로 단독주택으로 용도 표시되어 있다.

기본현황에서 현재용도는 영업소, 주택이며 주요시설로는 서점, 가족공예공방, 지역안내소, 전시관으로 되어 있고 건축형식으로는 지상 2층, 조적구조에 주마감재는 콘크리트로, 지붕은 아연접으로 기술되어 있다.

연혁에서는 1955년 10월 29일 신축,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상중하의 등급 중에서는 중의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신축일은 등기부 등본 상 변동사항에 변동일 1956년 10월 29일, 변동사항 및 내용 <1955. 10. 20. 개축>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오류로 보인다.

특징 및 주요가치는 '바깥채는 상점이고 안채는 일제강점기 건축한 생활공간임'으로 보았다. 주요 보존 부분은 연와조 건물형태이며, 건축자산적 가치는 역사적 가치와 원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가치 보존수준은 5개의 등급 중에 중하의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건축자산(건축물) 기초조사표를 기반으로 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관리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금곡동 11-9 점포 (구) 조흥상회는 1955년 10월 신축되었으며 1956년 10월 20일에 개축된 이후 60년 이

상 보존된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이다. 건물의 외관은 최근 9년간 리모델링 없이 보존되어 원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특한 회관의 바깥채는 상점이고 안채는 일제강점기에 건축한 생활공간이다. 1층에는 내가 만든 Bag 메고라는 이름의 가족공예공방과 나비날다 서점, 배다리 안내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2층에는 배다리 생활사 전시관을 조성하여 조흥상회 건물의 특색을 살려 50~80년대 배다리의 생활 관련 소품들을 정리해 놓았다.

건축자산에 대한 관한 자료는 일제조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에 연혁, 주요가치, 주요 보존부분, 가치 보존등급 등을 간략하게 기록되고 수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는다.

3.3.2 인천 조흥상회의 현황

조흥상회는 1950년대 이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쌀과 제사용품을 팔던 상업시설이었다. 1960년대 이후 조흥상회가 위치한 금창동 지역에는 현책방 거리가 조성되었고, 최대 50여 곳까지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5곳이 남아있으며, 현재 금창동 지역은 '인천개항장창조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조흥상회는 배다리 현책방 거리 초입 대로변 코너에 있으며 건물은 벽돌 구조의 본동, 창고동, 목조의 주거동으로 구성되어, 본동 중앙 현관을 통해 내부 마당으로 진입하여 개별 건물에 드나들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 ① Incheon Choheungsanghoe
- ② Baedari old bookstore street
- ③ Gaehang-ro
- ④ Sinpo International Market
- ⑤ Incheon Art Platform
- ⑥ Chinatown
- ⑦ Songwol-dong Donghwa Village

Fig. 8. Surrounding conditions of Incheon Choheungsanghoe



Fig. 9. Panoramic view Fig. 10. Aerial view

본동 건물은 2층 규모의 벽돌조 건축물로 1층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지고, 중앙 현관을 통해 내부 마당으로 나오게 되면 주거동과 창고 건물을 마주하게 된다. 2층으로 올라가는 동선은 주거동 1개소, 외부 1개소에서 각각 진입할 수 있고, 복도가 없는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방에서 방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2층에는 배다리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전시실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창고동은 본동과 주거동 사이에 있는 벽돌조 건축물로 본동 중앙현관을 거치지 않고 본동 좌측에 독립적인 출입구가 있고, 최근 2층 바닥판이 철거되어 통층 공간으로 변형되었다. 주거동은 목조 기와지붕으로 구성된 건축물로 방 4개, 주방 1개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현재 천장마감, 벽체 등이 파손되어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태이다.

3.3.3 인천 조흥상회의 활용계획

인천 조흥상회는 ‘책에 관한 문화적 경험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책과 함께하는 배다리만의 라이프스타일 확산’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근대건축자산을 지역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배다리의 정체성 강화 및 도시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 지속 가능한 공간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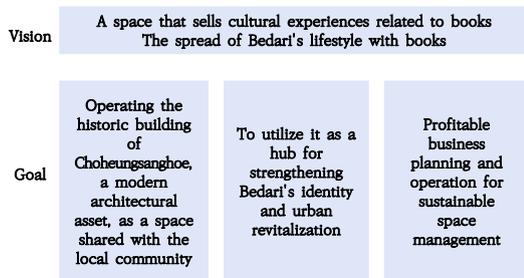


Fig. 11. Basic utilization direction of Incheon Choheungsanghoe

인천 조흥상회의 활용계획 역시 사업실행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기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단기활용은 2023년~2024년으로 계획하여 배다리 마을 안내소이자 책을 읽을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을 구성하고 책을 매개로 한 모티베이터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임 공간을 조성하여 정식 기관 전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었다.

장기활용은 2025년 이후로 음식에 관련된 책과 공유 주방이 설치된 공간을 구성하고 책과 음식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배다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활사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박물관과 단기사업에서부터 이어져 온 배다리 라운지를 확장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숙박 기능을 갖춘 북스테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로 계획되었다.

인천 조흥상회 활용 콘텐츠는 현재 배다리 지역에 없는 기능이면서 지역 활성화 및 지역정체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외부 방문객이 배다리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주민 및 외부 방문객에게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닌 자주 방문하고 싶은 이유를 제공하는 콘텐츠, 원도심 일대의 근대 역사를 주제로 한 문화기반시설, 문화시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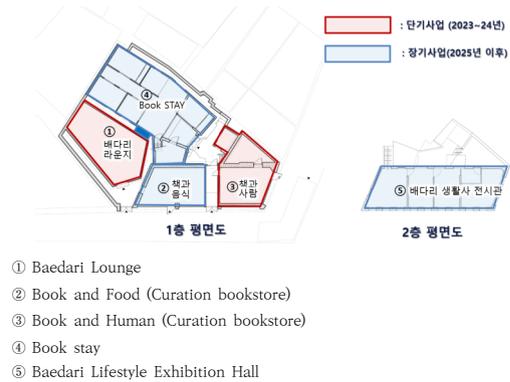


Fig. 12. Space layout of of Incheon Choheungsanghoe

운영시스템은 인천시와 인천시 동구의 도시계획, 지원 사업 방향이 청년 상인 · 사회적경제기업 · 로컬크리에이터 유입을 통한 로컬콘텐츠 활성화임을 감안하여, 청년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자체 수익모델을 발굴하여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계획하였다.

인천 조흥상회의 공간디자인은 조흥상회의 상가, 주택, 창고의 독특한 구성을 살려, 건축적 가치와 특이성을 유지하면서도 부가 기능을 추가하고 창의적 디자인으로 공간을 기획하고자 하였다.

인천 조흥상회의 활용계획은 주변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 적극적 수익모델의 창출, 공간구성의 특징과 역사성에 기반한 과감한 공간디자인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근대건축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개념 비교

4.1 법률 검토를 통한 비교·분석 개요

문화재보호법과 한옥등건축자산법을 비교하면 우선 각 법령의 관리부서는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에서 한옥등건축자산법은 국토교통부의 건축문화경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과 한옥등건축자산법은 Table 1과 같이 서로 다른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 그러나 두 개의 법령은 근대건축유산이라는 대상에게 같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근대건축문화유산이 두 개의 법령에 의해 동시에 관리를 받을 수는 없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문화재보호법의 대상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 근대건축유산이 등재될 때는 어느 법에 따른 등재를 하고 관리를 받을 지에 관한 규정은 명확히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laws

Types of laws	Heritage Protection Act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Act on Value Enhancement of Hanok and Other Architecture Asset
Administrative Agenc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
Initial Establishment	1962	2015
Purpose	Harmony betwee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while implementing relaxed conservation measures	Activ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
Designation Value	Historical, Artistic, Academic, Landscape value	Contribute to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Promote architectural culture, Shape the local identity
Basic Principles	Maintaining the original form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Applicability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Hanok and other Architecture asset
Note		Exclusion from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management

두 법령에 따라 등재된 각각의 근대건축유산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령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유사한 근대건축유산이라는 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법령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보존과 활용의 측면에서 두 법령이 근대건축유산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법의 명칭에서도 나오듯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다. 즉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형 유지를 기반으로 활용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등록문화재는 보존과 활용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완화된 보존조치를 시행하게 되어 있지만, 근간이 되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즉 활용하더라도 원형 유지의 원칙에서 벗어난 활용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을 보는 기준은 적극적인 원형 유지와 소극적인 활용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법령의 명칭에서도 나오듯이 진흥을 위한 것이다. 한옥과 근대건축유산을 포함한 문화적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정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기본 원칙에서도 건축문화유산의 활성화와 건축자산의 진흥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활용의 관점에서 근대건축유산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축자산으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역사성과 문화적인 원형에 대한 보존에 대한 근거와 기반을 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므로 보존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옥등건축자산법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을 보는 기준은 소극적인 원형 유지와 적극적인 활용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라는 지정가치로 판단할 때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의도는 건축물의 물리적 원형의 유지와 함께 좀 더 폭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근대건축유산으로서 사회·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근간으로 하여 활용과 진흥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4.2 활용계획사례 검토를 통한 비교·분석

이번 절에서는 활용계획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문화재 보호법과 한옥등건축자산법의 근대건축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의 개념을 비교해 본다.

전주 바다옥과 인천 조흥상회의 활용계획 사례를 보존과 활용의 관점에서 개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주 박다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로서 원형 보존을 기반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음이 보인다. 우선 당해건축물에 대한 원형을 복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기록화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복원을 언급하고 이후에 복원된 상태에서의 활용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수탁 및 보전재산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유지 보전형을 단기계획에서 언급하고 있고 이후 중장기 계획에서도 보수·복원을 설계와 이에 따른 복원공사 이후 관광자원화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보수·복원은 일반적으로 원형 고증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내부공사의 경우 활용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원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루어진다. 활용에 대한 논의도 건축유산의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알리는 프로그램 위주로 공간이 구성되고 공공성이 강조된다.

이와 같이 등록문화재의 경우 원형복원 및 보존이 기본이 되고 이에 대하여 당해문화재의 건축적 가치와 역사적가치를 부각하는 활용을 부가하는 개념을 가진다.

이에 반하여 인천 조흥상회는 활용을 먼저 논의한다. 활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부의 원형 유지와 함께 사회 문화적인 배경으로서의 원형을 유지한다. 우선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적 경험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라서 크리에이티브하고 지역 정체성과 활성화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 수입사업이 고려된다. 공간구성의 경우에도 활용목적에 의한 적극적 공간창출이 제안되고 조흥상회의 건축적 가치와 공간적 특징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보전이 제안된다.

이와 같이 건축자산의 경우 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활용프로그램 운영 및 수입사업이 고려되며 당해 건축유산의 건축적 가치와 공간적 특성은 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는 개념을 가진다.

5. 결론

이 연구는 법령 및 활용계획 사례의 비교·검토 및 분석을 통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전주 박다옥과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관리되는 인천 조흥상회를 대상으로 보존과 활용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근대건축유산은 문화재보호법과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두 법령의 기본원

칙 및 목적에 따라 보전과 활용의 범위와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문화재보호법과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의해 관리되는 근대건축유산을 보존과 활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두 법령 모두 근대건축유산의 건축적 가치보전에 공간을 두고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이 근대건축유산을 보는 기준은 적극적인 원형 유지와 소극적인 활용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 한옥등건축자산법이 근대건축유산을 보는 기준은 소극적인 원형 유지와 적극적인 활용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전주 박다옥과 인천 조흥상회의 활용계획 사례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우선 등록문화재인 전주 박다옥은 원형고증에 기반하여 보수·복원이 이루어지며 활용계획도 건축유산의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알리는 프로그램 위주로 공간이 구성되고 공공성이 강조된다. 반면 건축자산인 인천 조흥상회는 활용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이 적용되며 공간구성의 경우 활용목적에 의한 적극적 공간 창출이 제안되고 조흥상회의 건축적 가치와 공간적 특징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보전이 제안된다.

네 번째 근대건축유산의 경우 법령에 관계 없이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서의 역사성에 대한 보존 또한 필요하며 활용의 근간이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두 법령의 기본적인 제정의 개념과 목적은 각각 서로 다르지만 근대건축유산에 대한 보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활용의 근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점은 서로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근대건축유산은 활용을 위한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원형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근대건축유산에서 보존할 부분과 활용할 부분의 가치를 현재와 미래의 시점에서 신중하고 균형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의 건축유산유형 지정과 유형에 따른 보존과 활용의 사례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진정성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B. S. Kim, "An Analysis of Tendencies and Characters of the Concept Expansion of Cultural Heritage in Korea : Focused on Enactments and Reforms of the Law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Journal of Region & Culture*, Vol. 5. No. 3. pp.49-70, 2018
DOI: <https://doi.org/10.26654/iagc.2018.5.3.049>
- [2] S. W. Chong, C. L. Lim, "A Study of Legal Policy Science on the Protec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Inha Law Review*, Vol. 21, No. 1, pp.357-390, 2018
DOI: <https://doi.org/10.22789/IHLR.2018.03.21.1.357>

- [3] H. K. Lee, O. D. Son, N. Y. Lee, “From Cultural Property to Cultural Heritage: A Historical Review and Critical Reflection of Korea’s Cultural Property”, *J. Cult. Policy*, Vol. 33, No. 3, pp.5-29, 2019
DOI: <https://doi.org/10.16937/jcp.2019.33.3.5>
- [4] J. Y. Park, D. R. Chang, “Analysis of Complex Cultural Space Characteristics and Value Based on Modern Industrial Heritage”,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Vol. 20, No. 6, pp.177-188, 2019
DOI: <https://doi.org/10.47294/ksbda.20.6.14>
- [5] S. H. Hwang, *A study on the conservation method of potential architectural history & cultural asset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2018
- [6] S. D. Kim, Practical Handbook of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ve publication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Korea, pp.6-8
- [7] The National Trust for Cultural Heritage, Study on the Utilization Methods of Entrusted and Conservation Assets of The National Trust for Cultural Heritage, Research report, The National Trust for Cultural Heritage, Korea
- [8]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Report on the Documentation Survey of Bakdaok in Joongangdong, Jeonju, Documentation investigation repor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Korea, pp.61-62, pp.63-64
- [9] Incheon Metropolita City, Architectural Asset Preliminary Survey and Promotion Implementation Plan Report, Documentation investigation report, Incheon Metropolita City, Korea
- [10]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https://www.law.go.kr/> (accessed Dec. 20, 2023)

안 대 환(Dai-Whan An)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공학석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건축학박사)
- 1999년 5월 ~ 2013년 1월 :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 2016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유산, 한국건축사

문 승 현(Seang-Hyen Moon)

[정회원]



- 2006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 협동과정 (문학석사)
- 2016년 8월 : 전북대학교 대학원 도시·건축공학과 (공학박사)
- 2008년 4월 ~ 2012년 12월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
- 2012년 12월 ~ 현재 : 특수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 보전관리부장

<관심분야>

문화유산, 문화유산 BIM